

2021년 3월 4일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재 부각된 금리 상승 여파로 하락

ECB, 연준 위원들, “금리 상승 제어 정책 필요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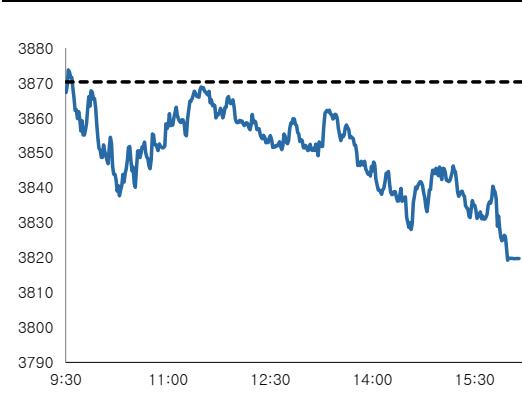
미 증시 변화 요인: 경제 정상화 Vs. 금리 상승 빌미

미 증시는 중국 긴축 우려 완화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가 상승세를 보이자 기술주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부양책 통과 가능성 부각 및 경제 정상화 기대가 높아지며 낙폭을 줄이기도 했으나, 금리 상승 이슈가 재 부각된 후 차익 실현 욕구가 확대. 한편, 연준은 베이지북을 통해 경제가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 했으나 영향은 제한된 가운데 나스닥 중심의 지수 하락은 지속(다우 -0.39%, 나스닥 -2.70%, S&P500 -1.31%, 러셀 2000 -1.06%)

바이든 대통령이 5월까지 모든 성인들에게 충분한 코로나 백신과 재정 부양책을 약속하자 경제 정상화 기대가 확산되며 미국의 국채 금리 상승폭이 확대. 1.9조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상원 통과 기대를 높인 점도 금리 상승 요인. 더불어 전일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및 브레이너드 연준이사가 금리 변화를 주시하고 있으나 연준이 특별한 행동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서 이날 ECB 위원들도 금리 상승을 제어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언급한 점도 금리 상승 요인. 최근 라가르드 ECB 총재는 금리가 너무 빨리 상승하면 기업들의 이자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 이를 제어할 것이라고 주장. 그러나 ECB 위원들의 발언으로 ECB의 금리 상승 제어 정책 기대를 약화 시킨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 이 여파로 기술주 및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이 부진

한편, 연준은 베이지북을 통해 미국의 경제가 ‘완만하게’ 개선되었다고 주장. 더불어 코로나 백신 보급으로 대부분의 기업이 6~12개월 전망에 대해 낙관적이라고 언급. 금융기관대출은 감소했으나 연체율도 낮아져 나쁘지 않으며, 고용 관련해서는 ‘느리지만’ 개선세는 유지하고 있다고 발표.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공급망 중단과 수요 증가로 ‘완만하게’ 상승했다고 주장. 기업들은 비용 증가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언급. 관련 발표 후 채권 및 외환 시장의 변화는 크지 않음. 연준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인플레 압력이 급등할 위험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이날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도 “연준이 금리 수준에 대응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 그러나 채권시장 참여자들은 여전히 인플레 압력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채 금리 상승세는 유지.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3,082.99	+1.29	홍콩항셍	29,880.42	+2.70
KOSDAQ	930.80	+0.83	영국	6,675.47	+0.93
DOW	31,270.09	-0.39	독일	14,080.03	+0.29
NASDAQ	12,997.75	-2.70	프랑스	5,830.06	+0.35
S&P 500	3,819.72	-1.31	스페인	8,329.30	-0.32
상하이종합	3,576.91	+1.95	그리스	815.10	-0.24
일본	29,559.10	+0.51	이탈리아	23,046.77	-0.16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입니다.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제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금융과 경제정상화 기대 종목 강세 Vs. 테마주, 소프트웨어, 기술주 부진

미 국채금리의 변동성이 확대되자 세일즈포스(-3.50%), 인튜이트(-3.25%), 어도비(-3.89%) 등 소프트웨어 및 MS(-2.70%), 알파벳(-2.57%), 아마존(-2.89%), 애플(-2.45%) 등 대형기술주 등이 부진했다. 더불어 금리 상승 시기 밸류 부담 이슈가 부각되며 테슬라(-4.84%), 니오(-4.07%) 등 전기차 업종, 퍼스트솔라(-5.18%), 진코솔라(-9.87%) 등 태양광 관련주, 틸레이(-2.36%), 오로라 캐나비스(-5.17%) 등 대마초 관련주, 줌 비디오(-8.37%), 비바시스템(-8.34%), 도큐사인(-5.57%) 등 PER이 높은 수준을 보이는 소프트웨어 관련주 등 테마주들도 하락했다.

JP모건(+1.93%), BOA(+2.50%), 찰스스왑(+1.82%) 등 금융 관련 기업들은 금리 상승에 기대 강세를 보였다. 엑손모빌(+0.80%), 셰브론(+1.12%) 등 에너지, GE(+3.54%), 허니웰(+0.21%) 등 산업재, 보잉(+2.43%), 아메리칸 에어라인(+3.40%) 등 항공, 카니발(+3.91%) 등 크루즈 업종은 경제 정상화 기대로 강세를 보였다. 마이크론(-2.17%)은 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을 상향 조정 했으나 기술주 매물로 하락했다. 알코아(+12.11%)는 골드만 삭스가 알루미늄 가격 상승을 이유로 투자의견을 매도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자 급등했다. 철강 업종인 US스틸(+0.97%)은 전일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갔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2.03%	대형 가치주 ETF(IVE)	-0.01%
에너지섹터 ETF(OIH)	+0.88%	중형 가치주 ETF(IWS)	-0.20%
소매업체 ETF(XRT)	-0.37%	소형 가치주 ETF(IWN)	+0.54%
금융섹터 ETF(XLF)	+0.78%	대형 성장주 ETF(VUG)	-2.74%
기술섹터 ETF(XLK)	-2.52%	중형 성장주 ETF(IWP)	-3.63%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2.91%	소형 성장주 ETF(IWO)	-2.57%
인터넷업체 ETF(FDN)	-4.27%	배당주 ETF(DVY)	+0.66%
리츠업체 ETF(XLRE)	-1.24%	신흥국 고배당 ETF(DEM)	+0.56%
주택건설업체 ETF(XHB)	-1.88%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17%
바이오섹터 ETF(IBB)	-3.58%	미국 국채 ETF(IEF)	-0.54%
헬스케어 ETF(XLV)	-1.27%	하이일드 ETF(JNK)	-0.17%
곡물 ETF(DBA)	-0.58%	물가연동채 ETF(TIP)	-0.25%
반도체 ETF(SMH)	-3.15%	Long/Short ETF(BTAL)	-1.66%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372.55	+1.43%	-0.97%	+23.42%
소재	470.58	-1.05%	-1.73%	+3.22%
산업재	782.25	+0.07%	-0.71%	+5.78%
경기소비재	1,274.68	-2.38%	-4.54%	-7.01%
필수소비재	650.97	-0.55%	-2.50%	-1.95%
헬스케어	1,306.45	-1.33%	-2.15%	-3.15%
금융	554.87	+0.75%	-0.29%	+11.35%
IT	2,269.80	-2.49%	-3.95%	-3.65%
커뮤니케이션	232.14	-1.59%	-2.51%	+2.64%
유틸리티	297.37	-1.18%	-2.16%	-7.10%
부동산	228.26	-1.17%	-5.04%	-2.9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하락 출발 후 낙폭 축소 전망

MSCI 한국 지수 ETF 는 0.29% MSCI 신흥 지수 ETF 는 0.20% 하락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26.41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5월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한다.

전일 한국 증시는 중국 정부가 경기에 저해될 정도의 규제는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긴축 우려가 완화된 데 힘입어 상승했다. 특히 철강 등 경기 민감주 등의 강세가 특징이었다. 이런 가운데 미 증시가 또 다시 금리 상승을 빌미로 기술주 및 밸류 부담이 높은 일부 테마주 중심으로 매물을 내놓으며 하락한 점은 부담이다.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은 결국 신흥국 증시에서 외국인의 수급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1.0% 내외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며 미 증시 특징처럼 여전히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진행 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11% 하락했으나 마이크론(-2.17%)이 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한 점은 긍정적이다. 마이크론은 이번 분기 매출에 대해 기존의 56~60 억 달러에서 62~62.5 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으며, 주당 순이익 또한 기존의 68~82 센트에서 93~98 센트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DRAM 공급이 타이트하고, 재고도 최근 분기 보다 더 적다는 점에 기반한 결과다. 최근 반도체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론의 실적 가이던스 상향 조정은 국내 반도체 업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하락 출발 후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낙폭을 축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고용지수 둔화

2월 ADP 민간 고용 보고서에서 비농업 고용자수는 지난달(19.5 만건)이나 예상(16.5 만건)을 하회한 11만 7천건에 그쳤다. 제조업은 지난달 1만 7천건 증가에서 1만 4천건 감소했으며 서비스 생산 또한 17만 8천건에서 13만 1천건으로 감소해 전반적으로 둔화되었다.

3월 ISM 서비스업지수는 전월(58.7)이나 예상(58.7)을 하회한 55.3으로 발표되었다. 세부항목을 보면 신규주문(61.8→51.9), 생산지수(59.9→55.5)는 둔화된 반면, 가격지수(54.2→71.8)는 상승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OPEC+ 감산 규모 유지 기대로 급등

국제유가는 OPEC+ 정례회담에서 감산 규모 축소 보다는 유지를 할 것이라는 기대가 유입되며 상승 했다. 더불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드라이빙 시즌을 앞둔 5 월까지 모든 성인에게 백신 접종을 마칠 것이라고 발표한 점도 긍정적이다. 이는 원유 수요 증가 기대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미 에너지 정보청이 지난 주 원유재고에 대해 2,160 만 배럴 증가했다고 발표 했으나 가솔린이 1,360 만 배럴, 정제유가 970 만 배럴 감소하는 등 수요 증가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달러화는 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추가 부양책 통과 기대에 힘입어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5 월까지 모든 성인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은 경제 정상화 기대를 높였다는 점에서 달러화 강세 요인 중 하나였다. 한편, 역외 위안화 환율은 달러 대비 소폭 약세를 보인 가운데 대부분의 신흥국 환율도 약세를 보였다. 미국 국채 금리 상승세가 확대되자 자금 이탈 가능성에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국채금리는 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이 5 월까지 모든 성인들에게 코로나 백신과 재정 부양책을 약속하자 경제 정상화 기대가 확산되며 상승 했다. 더불어 ECB 위원들이 금리 상승을 제어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언급한 점도 금리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최근 라가르드 ECB 총재는 금리가 너무 빨리 상승하면 기업들의 이자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 이를 제어할 것이라고 주장 했지만 ECB 위원들의 발언으로 ECB의 금리 상승 제어 정책 기대를 약화 시켰기 때문이다.

금은 달러 강세 및 금리 상승 여파로 하락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경제정상화 기대에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 및 전일 상승에 따른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했다. 특히 니켈이 7% 넘게 급락한 점이 특징이다. 대두, 옥수수 등 곡물은 전일 상승에 대한 되돌림 현상이 발생하며 하락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17% 상승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61.28	+2.56	-3.07	Dollar Index	90.957	+0.19	+0.87
브렌트유	64.07	+2.19	-3.19	EUR/USD	1.2064	-0.22	-0.84
금	1,715.80	-1.03	-4.57	USD/JPY	106.97	+0.26	+1.04
은	26.387	-1.83	-5.52	GBP/USD	1.3950	-0.04	-1.35
알루미늄	2,200.00	-0.52	+0.71	USD/CHF	0.9196	+0.52	+1.45
전기동	9,101.50	-0.75	-2.22	AUD/USD	0.7782	-0.49	-2.33
아연	2,787.00	-2.24	-2.09	USD/CAD	1.2645	+0.08	+1.05
옥수수	535.25	-1.79	-3.90	USD/BRL	5.6232	-0.73	+3.83
밀	656.00	-1.54	-4.30	USD/CNH	6.4766	+0.03	+0.45
대두	1,407.50	-0.35	-1.28	USD/KRW	1120.30	-0.33	+0.87
커피	132.80	-0.78	-3.24	USD/KRW NDF1M	1126.41	+0.14	+1.70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1.469	+7.73	+9.31	스페인	0.388	+7.10	-0.10
한국	1.950	-2.00	+5.80	포르투갈	0.278	+6.40	+0.20
일본	0.119	-0.90	-0.70	그리스	0.989	-0.70	-2.30
독일	-0.288	+6.40	+1.60	이탈리아	0.753	+7.90	+6.8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